

彌勒寺址石塔 平面形式의 時代位置

김 덕 문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I. 序 論

II. 沿 革

III. 平面形式

IV. 塔石塔 平面形式의 變遷過程

V. 結 論

국문 요약

미륵사지 서탑은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탑이다. 현재까지 연구 진행된 결과에 따르면 미륵사지 서탑은 9층 석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탑에 대한 직접적인 창건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륵사의 창건기사가 『三國遺事, 武王條』에 연기설화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설화적인 역사의 기록은 사실성에 대한 규명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사적 측면에서 평면형식의 시대 위치에 대한 고찰은 탑의 창건 연대 규명에 하나의 가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서 미륵사지 서탑의 양식과 계통사 연구에 근간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행코자 한다.

목조변안 석탑으로도 유명한 미륵사지 서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동안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 불탑은 인도에서 발생되어 중국을 거쳐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미륵사지 서탑보다 앞선 시기의 유례를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중국의 실 예를 참고하여 접근해 보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韓國과 中國의 塼石塔 평면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형식이 7세기 초에 위치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주제어: 미륵사지 석탑, 평면형식, 시대 위치, 십자통로, 7세기 초

I. 序 論

미륵사지 서탑은 백제 武王代(A.D. 600~641)에 미륵사와 함께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탑의 창건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三國遺事』에 나타나 있는 미륵사 창건에 관한 연기설화를 통해 탑의 건축연대를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한다.¹⁾

1) 『三國遺事』卷第二 紀異二 武王條에는 :

一日王與夫人 欲幸獅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 一夜頽山填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會(尊) 殿塔廊 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國史云 王興寺). 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 (三國史記云: 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어느 날 왕과 부인이獅子寺에 가고자 용화산 아래 있는 큰 못가에 이르렀다. 못 가운데서 미륵 삼존이 출현하여 수레를 멈추고 경배하였다. 부인은 왕에게 간청하였다. “바라건대 이 못에 커다란 가람을 이룩하기를 참으로 원하옵니다.” 왕이 허락하며 知命이 있는 불사에 참배하고 못을 메울 일을 분부하여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허물어서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었다. 이에 미륵 삼존불상을 세우고 殿과 塔, 回廊을 각각 세 곳에 조성하여 미륵사라 편액을 걸었다.(국사에는 왕흥사라 이름) 眞平王은 百工을 보내 도왔으며 그 사찰이 오늘에까지 남아 있다.(삼국사기에 법왕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자세히 알 수 없다.)



<사진 1> 미륵사지 조감

미륵사 창건의 연기설화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임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는 기록과의 차이는 창건 연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설화의 역사적 사실성 여부는 미륵사 창건 연대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다.²⁾ 『三國遺事』가 설화일지라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음에 특별히 주목된다. 석탑 평면형식의 시대적 위치를 알아봄은 창건 연대에 대한 규명에 있어 가치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서탑에 대한 건축사적 입장에서의 시대 규명이나 목조변안 문제는 초기 연구자들의 고찰에 그치고 있다.³⁾ 목조변안 문제에 대한 건축사적 규명 작업은 목조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백제 건축에 대한 접근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미륵사지 서탑에 백제시대 건축형식의 존재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목조변안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日本의 關野貞은 '朝鮮의 塔婆' 『國華』 第267號에서 미륵사의 창건을 통일신라 이후의 報德國 安勝王代로 보고 있다. 李丙燾는 삼국유사의 薯童說話를 백제 24대 東城王의 일로 보고 미륵사의 창건연대를 東城王代로 추정하고 있다. : 薯童說話에 對한 新考察, 歷史學報 第 1輯, 49 ~ 68쪽. 洪思俊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武王條에 나오는 王興寺 창건 기록에서 王興寺가 彌勒寺임을 규명하였다. : 彌勒寺址考, 第 2回 馬韓·百濟文化學術會議, 17 ~ 18쪽.

3) 미륵사지 서탑에 대한 목조 변안 문제는 1948년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이래 1975년 金正基, 典型樣式의 石塔과 彌勒寺址 石塔 『馬韓·百濟文化』,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創刊號에서 고찰되어 있다.

II. 沿革

미륵사지 서탑은 창건 이후 수리 또는 개축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관련 기록을 보기 어렵다. 『三國史記』 卷 第8 新羅本紀 聖德王 18년(719)에는 “十八年 春正月 遣使入唐賀正 秋九月 震金馬郡彌勒寺”라는 사건 기록이 나타나 있다.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미륵사는 통일신라시기까지 사기에서 언급할 정도로 크게 경영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기록에서 서탑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⁴⁾

후백제 시기의 「惠居國師碑文」⁵⁾에는 “.....龍德 2년(922) 여름 오로지 미륵사 탑을 일으켜 세운 은혜로 인해 선운산 선불장(부처님을 기리는 행사)에 나아가 단에 올라 설법을 하니 천상의 묘화(妙花)가 흩어져 나부끼며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미륵사지에는 중앙 목탑과 함께 동,서 석탑으로 구성된 세 개의 탑이 있었으므로 현존하는 서탑의 개축을 이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의 『三國史記』에서 “震”을 『春秋公羊傳』⁶⁾에서의 “地震”⁷⁾을 빌어 지진으로 해석해 보면 석탑이 거의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건축적으로 조적조는 지진에 가장 취약한 구조임으로 석탑이 전체적으로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惠居國師碑文」에 나타나는 “開塔”을 “開倉塔”으로 확대시켜 보면 『三國史記』에서의 “震”을 地震으로 연결지음과도 무리 없는 추론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부연하면 「惠居國師碑文」에서 일부 무너진 석탑을 중수했을 때, “수습했다”든가 “중건했다”고 적었을 듯하다. 또한 석탑의 본래 위치를 옮겨 짓거나 전혀 옛 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쌓았다면 오히려 “창건”또는 “중창”했다고 일렀을 듯하다. “開塔”이라는 말에서 직설적으로 “탑을 일으켜 세웠다”고 해석해보면, 옛 부재들을 수습해 다시 쌓았을 듯한 改築의 느낌이 여운으로 남는다.

미륵사지 서탑의 改築 사실은 현재 상태의 옥개석 규격에서 볼 수 있다. 5층부터 2층까지 평옥개석은 규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정한 모듈을 찾아보기 어렵다. 평옥개석의 처마에 나타나는 좌우 폭은 5층의 경우 743mm에서 835mm, 4층 843mm에서 1,671mm, 3층 884mm에서 1,183mm, 2층 785mm에서 1,141m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평옥

4) 震은 지금까지 벼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朝鮮 英祖(1724~1776년) 때의 康侯晉은 『臥遊錄』에서 앞에 霹靂를 붙여 霹靂震으로 적어 벼락으로의 해석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震은 『詩經』에서 “燁燁震電”이라 하여 벼락의 뜻으로 쓰고 있다. 『春秋公羊傳』에서는 “地震者何, 動地也.”라 하여 지진을 뜻하고 있다. 용례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글자이므로 처음 震을 사용한 『三國史記』에서의 어의에 대해 보다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

5) 『三國史記』, 「惠居國師碑文」, “.....龍德二年夏彌 勒寺開塔之 恩仍 並開雲山國師之 塔壇增設法時天花續 續 ..”

6) 《春秋》의 해설서. 《春秋公羊傳》이라고도 한다. 五經의 하나인 孔子의 《春秋》이며 漢代 초에 책으로 정리되었다. 통설에 따르면 孔夏의 제자 公羊高의 작품이라 한다.

7) 『春秋公羊傳』: “(經九·十二) 九月癸酉, 地震. (傳) 地震者何? 動地也.

개석의 좌, 우 쪽은 처마의 전체 길이를 결정짓는 단위가 된다. 처마의 길이는 층별 체감을 이루는 주요 구조부로서 평옥개석에서 모듈이 나타나지 않음은 석탑의 改築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그 밖에 적심석으로 사용된 외면 부재와 옥개받침석으로 대치된 기단석 등은 더욱 改築 사실을 확실케 한다.

당초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석탑을 세우면서 층별, 부재별 모듈도 없이 축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되면서 흔재된 수많은 부재를 선별 정리하여 제자리에 찾아 복구하는 일도 과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부재는 대부분 1톤 이상의 무게로 제작되어 있으며 큰 부재의 경우 2톤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재의 개수는 현재 남아 있는 양만해도 1,5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붕괴 후 수많은 부재들이 흔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改築을 가정해 보면 그때그때 수습되는 부재로 쌓아 올리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⁸⁾

고려시대에는 서탑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朝鮮 中宗 25년(1530)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⁹⁾에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 “미륵사는 용화산에 있다. 세간에 전하기를 武康王이 인심을 얻어 馬韓國을 세우고.....(이하의 내용은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二 武王條와 유사함.)” 기사의 내용에서 미륵사의 위치를 용화산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주목된다. 또한 지명의 확인은 『三國遺事』에 나타나 있는 창건 연기설화를 더욱 사실화 시켜 주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탑의 층수를 비롯해서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동방 최대의 석탑이라 적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는 벼락(震)¹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로써 보면 혹시 『新增東國輿地勝覽』 작성 당시인 1530년경에는 서탑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서 있었을 지도 모른다. 더욱이 문미에 대단히 큰 석탑이며 높이가 여러 丈으로써 동방 최대의 석탑이라고 강조한 표현을 보면 무너지지 않은 원형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成明宗代의 문신 蘇世讓이 저술한 『陽谷集』 (1570년)의 “미륵사 주지 雲稀 시권에 쓴 2수”¹¹⁾에서는 雲稀라는 주지가 있어 미륵사가 아직 경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탑의 크고 높음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 목탑이 이미 없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탑의 층수는 알 수 없으며 허물어진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 혹시 이 당시에는 원형이 남아 있

8) 拙稿, 「Ⅲ. 木造禪案要素考察」, 『彌勒寺址石塔 解體調査報告書 Ⅱ』 國立文化財研究所·全羅北道, 2004. 129쪽.
 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三 益山郡 佛宇條」 : “彌勒寺 在龍華山 世傳武康王得人心立國馬韓 一日王與善花夫人 欲幸獅子寺 山下大池邊三彌勒出現池中 夫人謂王曰 願建伽藍於此地 王許之 詣知命法師 問填池術 師以神力一夜顏山填池乃創佛典 又作三彌勒像 新羅眞平王遣百工助之 有石塔極大 高數丈 東方石塔之最.
 10) “震”은 지진(地震)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해석에 따라 벼락으로 읽었음.
 11) 書彌勒寺住持雲稀詩卷 二首, “雪積千峯人跡稀 禪闕白日掩柴扉 道人宴坐觀空處 祇有瓊花滿院飛 華山西麓古伽藍 吉地相傳冠海南 石塔聳空三百尺 最宜彌勒與同龕” 여러 봉우리 눈 쌓여 인적 드물고 빗장 걸린 한낮의 절 울타리 새로 엮보니 도인은 한가로이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네. 때마침 사원 가득 휘날리는 푸른 옥빛 눈꽃 화산(華山) 서쪽 옛 가람 해남의 으뜸이라 서로 전하는 길지 공중에 우뚝 솟은 석탑 삼백 척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륵이 함께 하는 감실

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英祖(1724~1776년) 때의 康侯晉이 쓴 『臥遊錄』 「遊金馬城記」¹²⁾에서는 무너진 7층 석탑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륵산 서쪽 기슭에 옛 미륵사 터가 있다. 밭두렁 가운데 대단히 크고 높은 7층 석탑이 있다. 모두 돌을 사용해서 둘러막고 겹겹이 포개 쌓아 올려 단장해 놓았다. 돌로 기둥을 따로 세워 네 모서리를 받치고 있다. 세간에서 동방 석탑 중 최고라 이름은 헛소리가 아니다. 100년 전에 벼락(霹靂)이 떨어져 그 절반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석문이 있어 세 사람이 함께 불편 없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장난 삼아 서쪽에 두른 벽으로 탑에 올라간 농부 세 사람이 농기구를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밭두렁 사이에는 초석과 石槽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어느 것은 가장자리 반만 노출되어 있고, 어느 것은 전체가 드러나 있다. 혹은 비스듬하게 깨져 있거나 더욱 험한 것도 있다. 종각의 주초석으로 생각되는 것도 완연하게 여럿이 나란히 놓여 있다.”

서쪽에 두른 벽으로 올라갔다(緣西壁陟)는 말이 특별히 주목된다. 오늘날에도 서탑의 서측 남북 모서리 부위에는 무너진 사면을 부축하고 있는 석축이 남아 있다. 이 석축은 1915년에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위를 콘크리트로 메우기 이전 도면이나 사진 자료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한 석축의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런 가운데 『臥遊錄』의 표현은 英祖(18세기) 때에 이미 이 석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의 단서가 된다.

현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처마가 내밀어져 있는 탑의 동측 면을 보면 밝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무너진 돌 더미를 두고 굳이 벽(壁)이란 말로 표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서쪽이라는 방위도 일치하며 “緣”은 가선, 묶음, 가장자리를 꾸미다, 연줄, 두르다, 걸 따위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대체로 가지런히 정돈해 쌓아올린 석축의 모습을 표현함에 적절한 말이라고 이해된다. 지나친 추측일지 모르나 康侯晉이 현재의 모습처럼 방형으로 쌓여 있는 석축을 보고 『荀子』의 “方城으로 둘러쌌다(緣之以方城)”¹³⁾는 어의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진 2>

『金馬誌』(1756년) 古蹟條¹⁴⁾에는 : “미륵사탑은 미륵사 옛 처소의 남쪽에 있다. 높이가 10여丈이며 동방 최고의 석탑이라 속설에 전해지고 있다. 아래에는 나누어져 통하는 사이로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세칭 八陣法을 본뜬 모양이라 하고 있다. 세우고 허물어짐(生殺)이 어느 해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벼락이 내리친 곳인 서쪽

12) 康侯晉, 『臥遊錄』 遊金馬城記 : “...彌勒山西麓 有古彌勒寺基 ... 田畦中有七層石塔 極其高大 皆用石屏 累疊粧成以石柱支其四隅 世所謂東方石塔之最者 非虛語也 百年前因霹靂毀其一半 而下遊石門能通出入 遂與三人同人遊玩緣西壁陟塔上有數三農人挾田器臥於其上 田畦間礎石與石槽亂鋪或露半邊或露全體或斜而破或削而尤 惟鐘閣之礎鳴完全然狎存”

13) 『荀子』 「議兵篇第十五」: 汝穎以為險, 江漢以為池, 限之以鄧林, 緣之以方城

14) 南泰晉, 『金馬誌』, 英祖 32년(1756), 古蹟條 : “彌勒寺塔在彌勒寺舊處之南 高十餘丈 俗傳東方石塔之最高者 下通八間 可容人出入 世稱象八陣法 有生殺間云不知何年 爲雷所擊而西一半頽落 厥後經浩劫而亦不益崩 按然黎記述 新羅聖德王二十九年六月雷擊而崩”

반은 퇴락되었다. 그 후 흔들린(經)¹⁵⁾ 큰 탑(浩劫)¹⁶⁾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不益崩) 무릇 기록을 살펴보면 新羅 聖德王 29년(730) 6월에 벼락(雷擊)으로 무너졌다고 한다”.

『金馬誌』에서는 1층에 통로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건립과 붕괴시기를 알 수 없다 이르고 있다. 벼락으로 서쪽이 무너져 부재들이 형클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1756년경에는 이미 탑이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에서는 현재의 서측에 있는 석축의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확대해서 추측해 보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어떻게 더 이



<사진 2> 1910년대 미륵사지 서탑

상의 붕괴를 저지하였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 마지막에 벼락의 시기를 적음은 『三國史記』를 참조하여 “秋九月”을 “六月”로, “震”을 “雷擊”으로 고쳤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도 聖德王 18년(719)에서 29년(730)으로 고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전후 문집들의 표현을 통해 보면 16세기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陽谷集』에서는 무너진 상태를 언급하지 않고 석탑을 동방 최고 또는 三百尺으로 거대하게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陽谷集』 蘇世讓의 시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눈 오는 겨울날에 거대한 탑이 솟아 있는 사찰의 쓸쓸한 풍경을 관조하면서 어찌해 무너진 탑을 시 속에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시의 분위기에 비추어 추측컨대 석탑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惠居國師碑文』에서의 개축을 염두에 두고 『陽谷集』을 보면 현재 나타나 있는 붕괴 시기는 1570년 이후에 일어났다고 가정된다. 앞서의 16세기 문헌들에서는 허물어진 상태와 『三國史記』의 “震”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18세기의 『臥遊錄』에서 처음으로 100년 전에 벼락(霹靂)으로 탑의 절반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타나고 있다. 전후 시기의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臥遊錄』의 기술은 보다 신빙성 있게 보인다. 이로써 현재 나타나 있는

15) 『淮南子』 「卷七 精神訓」 ; “若吹熊呼吸, 吐故內新, 熊經鳥伸, 鼻浴 爰, 鷗視虎顧, 是養形之人也, 不以滑心. 熊經鳥伸 : 神仙 導引法の 한 가지. 곰이 앞발로 나무를 잡고 서서 숨을 쉬듯 하며(經 : 흔들다) 또한 새와 같이 목을 길게 빼는 자세와 동작.
16) 杜甫, 「玉臺觀」 : 浩劫因王造 平臺訪古游. 彩雲蕭史駐 文字魯恭留. 宮闕通群帝 乾坤到十州. 人傳有笙鶴 時過此山頭. 왕들이 쌓아올린 드높은 석축 넓은 대에 올라 옛날에 머무니. 역사 속에 쓸쓸히 머무는 구름 기다리는 이 노를 받들던 글자 뿐. 여러 제왕 지나간 궁궐 십주에 이르렀던 하늘과 땅. 생황 학 있음 전하던 사람 이제 산꼭대기를 넘고 있네.

붕괴는 17세기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더불어서 『臥遊錄』에서의 둘러친 서쪽 벽(緣西壁)으로 올라갔다는 “陟”을 밟고 올라갔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緣西壁”과 “陟”를 통해서 오늘날 탑의 서측에 남아 있는 석축의 축조시기를 17세기 내지는 18세기로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한다.

III. 平面形式

『朝鮮塔婆의 研究』에서 高裕燮선생은 한국 석탑의 출발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거론하고 있다. 하나는 多層樓閣에서 비롯된 木造塔婆에서 석조탑으로 이행된 양식을 선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隋·唐 이래 나타난 塼造塔婆에서 출발한 양식을 꼽고 있다. 미륵사지 서탑은 목조탑파에서 이행된 최초의 석탑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塔婆의 樣式變遷」에서 미륵사지 서탑은 定林寺址 5層石塔보다 규칙, 정연하지 못한 점을 들어 선행된 모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사진 3>

미륵사지 서탑은 新羅系 石塔을 대표하는 感恩寺址 東·西3層石塔이나 百濟系 石塔의 대표적 양식인 定林寺址 5層石塔에서 나타나는 완성된 石塔의 선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미륵사지 서탑에 선행되는 양식을 현존하는 석탑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시원 양식을 논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현재로써는 미륵사지 서탑이 신라계와 백제계 석탑에 공통되는 한국 고유의 祖形石塔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⁸⁾<사진 4>

미륵사지 서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구로써



<사진 3> 定林寺址 5層石塔



<사진 4> 感恩寺址 東·西3層石塔

17) 高裕燮, 위 책, 276쪽.

18) 金正基, 「典型樣式的 石塔과 彌勒寺址石塔」, 『馬韓·百濟文化』第一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5, 106쪽.

한국 석탑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간직하고 있다. 石塔은 中國이나 日本보다 우리나라에 고대 유구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미륵사지 서탑은 목조에서 번안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고대 유구로써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비슷한 시기의 사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일하다. 목조에서 번안된 사실은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상태지만 구체적인 고찰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번안 과정에 대한 논증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미륵사지 서탑에 나타나 있는 목조번안 사실을 논하려면 模形이 되는 백제시대의 목조건축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륵사지 서탑이 석조 탑으로 시도된 최초의 건물이라고 해도 불탑의 발생전과 경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특수한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法隆寺 金堂과 5層木塔이 백제시대의 목조건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건립 연대의 전후 관계상 직접적으로 대비시켜 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립 연대에 대한 건축사적 입장에서의 확인과 당시 목조건축에 대한 상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륵사지 서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祖形石塔이며 목조번안 탑으로써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탑의 양식 계통사를 논할 경우에 祖形은 건축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제시대의 목조 건물이 없는 가운데 목조번안에 대한 사실규명 또한 탑의 건축연대 파악이 우선 되었을 때 추적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관련 기록이 없는 미륵사지 서탑의 창건 연대는 평면형식의 변천과정 속에서 시대적 위치를 파악해 보는 방법이 유리할 듯하다.

대체로 고건축은 중건이 이루어져도 본래의 평면형식이 유지되면서 상부의 구조, 양식이 바뀌게 된다. 실 예로 덕수궁 중화전의 경우 본래 중층건물이었으나 단층 건물로 중건되면서 평면형식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고건축에서 평면형식이 오랫동안 고수되는 원인은 상부보다 기단 이하 구조의 축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목조 건물은 기단 이하의 석조부 축조가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석조 건물의 경우 상부 구조와 규모를 바꿀 경우 하부 기초를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건 또는 개축 과정에서 기단 이하의 규모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함이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다. 고건축의 이런 속성은 미륵사지 서탑이 개축되었을 지라도 창건 당초의 형식이 평면에서 가장 많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제의 불교는 枕流王 元年(384)에 東晉의 胡僧 摩羅難陀에 의해서 전래되었다.¹⁹⁾ 불교 전래이후 백제의 사찰건축은 聖王 5년(527)에 창건한 大通寺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나타나 있다. 大通寺址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강당지와 금당지, 탑지의 일부가 일제시대에 발견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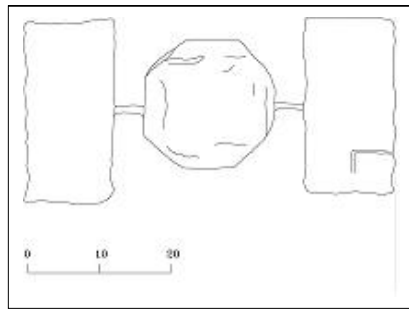
19) 《三國史記》卷第二十四 百濟本紀第二枕流王條 참조.

일탑일금당식 가람이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밖에 여러 사지에서 탑지가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지에서 탑지는 대부분 목탑지로 알려져 있다. 석탑으로는 아직 미륵사지 서탑보다 앞선 시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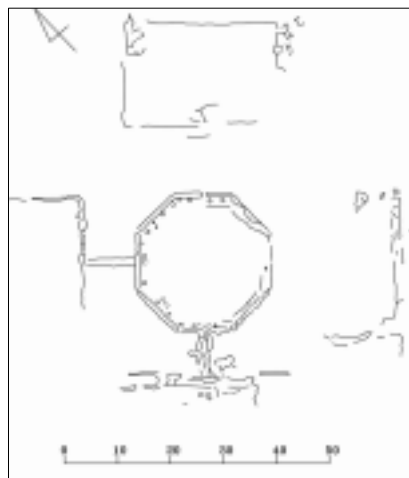
우리나라 탑의 평면형식은 기본적으로 팔각형과 사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팔각 평면의 탑지는 주로 고구려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의 寺址는 金剛寺址(文咨王 7年, 498), 定陵寺址(金剛寺 以前), 光法寺址, 上五里寺址, 淸湖里寺址, 永明寺址, 重興寺址, 낙사리 사지, 암사리 사지, 평천리 사지, 태왕사지, 元五里寺址, 土城里寺址 등이 있다. 이중에 팔각 평면은 定陵寺塔址, 金剛寺塔址, 上五里寺塔址, 永明寺塔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팔각 평면의 塔址는 평양 부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팔각 탑은 대부분 목탑이다. 그밖에 고구려 탑은 대부분 4각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2, 3>

목조탑은 고구려에서 팔각 평면이었으나 백제와 신라에서 방형으로 발전되었다.²⁰⁾ 백제의 목조탑 유지는 대통사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제석사지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사지에서 발견된 탑지는 대부분 방형의 윤곽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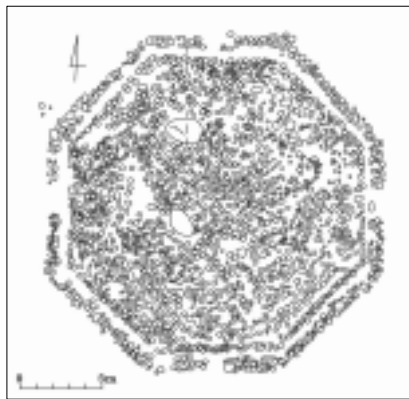
백제에는 武王代에 창건된 미륵사지 서탑(600~641년)이 있다. 정림사지 석탑은 관련 기록이 희박하여 창건 연대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 양식, 축조 기술, 규모, 사찰의 성격, 석탑 건립 선후의 연계성 등으로 보아 미륵사지 서탑보다 나중에 세워졌다고 판단되고 있다.²¹⁾ 두 석탑 모두 방형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평양 상오리 절터



<그림 2> 평양 금강사 발굴터



<그림 3> 평양 정룡사터 목탑지

20) 천득염,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1, 28쪽.
21) 천득염, 앞책, 181쪽.

신라에서는 황룡사 목탑지(善德王 14년, 645)와 芬皇寺 模塼石塔(善德王 3년, 634)이 방형 평면으로 나타나 있다. 芬皇寺 塔은 임진왜란 당시에 반파되었으며 미흡한 개축과정에서 또 다시 그 반을 훼손하고 말았다.²²⁾ 현재 3층의 모습도 1914년 일본 사람들에 의해 수리된 상태다. 1층 탑신의 4면에 벽감이 있고 문비가 설치되어 있다. 통로와 내부 구조에 대한 고증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1층 4면에 설치된 문과 벽감은 혹시 중국의 전탑들에서처럼 완전한 통로와 내부 중앙에 위치한 감실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임진왜란 이후의 개축 실패와 1914년의 미비한 고증 속에 이루어진 수리는 더욱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미륵사지 서탑은 방형 평면이면서 내부에 십자형의 통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석탑에서 내부 공간이 있는 유일한 예이다. 또한 목조 번안요소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 십자통로형식은 목조건축의 번안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공간인지 초기의 석탑에 있었던 본래의 형식인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분황사 모전석탑에서도 십자통형식이 있었을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비록 현존하는 유일한 실 예이지만 하나의 석탑 평면형식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IV. 塼石塔 平面形式 變遷過程

초기 백제시대에는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면서 불사 건축형식도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불교의 전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前漢 哀帝 元年 (B.C. 1)에 전래 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²³⁾ 중국의 불탑은 漢 明帝 永平 18年(A.D. 75) 洛陽 白馬寺塔이 최초로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魏書 釋老志』에 탑의 형상은 중요한 구조를 인도 양식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敦煌 千佛岩 제 120굴 안에 있는 탑 역시 인도 스투파를 본 딴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 후 스투파 형태로 된 탑의 구조는 석조로부터 塼, 木造로 변하면서 내부에 불감이 설치되었다. 또한 내부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외부에 회랑을 두르고 처마가 중첩되면서 점차 목조 누각건축을 닮아갔다.²⁴⁾

22) 『東京雜記』: “火珠芬皇寺九層塔新羅三寶之一也。壬辰之亂賊毀其半 後有愚僧欲改築之又毀其半 得一珠形如碁子光似水精 舉而燭之 則洞見其外太陽照處以綿近之 則火發燃綿今藏在栢栗寺。

23)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2000, 17 ~ 18쪽.

24) 劉敦楨, “佛教對中國建築之影響”, 劉敦楨文集,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2, 5쪽.

백제의 불교는 枕流王 元年(384)에 東晉의 摩羅難陀에 의해 도래되었음이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다. 이 무렵 東晉에서는 甘肅敦煌 莫高窟(356~366년) 창건이 개시되고 있다. 敦煌莫高窟에는 이미 목조 누각식의 탑을 모사해서 조각한 탑주(塔柱)가 나타나 있다. 곧바로 뒤이은 시기인 晉 咸安 2년(372)에는 健康 長千寺에 3층 불탑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다. 東晉에서의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백제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탑은 이미 목조 누각식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목조 누각식 불탑에는 불상이나 불적 등을 안치하기 위한 내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으리라 믿어진다. 목조탑을 모방한 磚·石塔에서도 감실과 통로를 구비하는 평면형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스투파 본래의 형식을 이은 묘탑은 다른 하나의 형식 계통으로 이어져 부도탑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미륵사지 서탑은 목조탑에서 이행된 감실과 통로를 구비한 전·석탑형식의 계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 5> 河南 登封縣 嵩岳寺塔

塔은 河南 登封縣 嵩岳寺塔(南北朝, A.D. 523년)이 가장 오래된 실례로 남아 있다. 嵩岳寺塔은 1층의 외경이 10.7M, 내경 5.9M인 12각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에는 십자형 통로가 중앙의 8각 감실로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중앙 감실은 정상부까지 이르는 통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각 면에는 외부에 작은 감실이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있다. <사진 5>



<사진 6> 西安 慈恩寺 大雁塔

불교가 점차 널리 전파되어 많은 불탑을 축조함에 따라 희귀해진 불사리 대신 불경이나 불상을 탑 안에 안치하게 되었으리라 믿어진다. 西安 慈恩寺 大雁塔(唐, 704년)은 玄奘法師가 652년에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²⁵⁾. 4각 7층 전탑인 大雁塔의 1층 평면에서도 중앙 감실과 사방으로 트인 십자형 통로가 나타나 있다. <사진 6>

중국의 전탑에서 감실과 통로는 南北朝時代의 嵩岳寺塔(523년)으로부터 清 乾隆12年(1747)에 세운 北京 西山 碧雲寺塔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기 520년에 건립된 河

25) 梁思成, 『中國建築史』,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2000, 89~90쪽, 참조.

南 登封縣에 있는 嵩岳寺塔과 서기 701~704년의 慈恩寺 大雁塔 평면에서는 미륵사지 서탑과 같은 십자 통로를 볼 수 있다. 嵩岳寺塔은 현존 중국 最古代의 불탑으로써 평면이 12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형에 가깝다. 원기둥과 포탄 모양으로 이루어진 돔 형태의 입면은 인도 스투파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로 남아 있다.²⁶⁾ 이 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오히려 십자형 통로와 중앙 감실에 있다. 십자형 통로와 중앙 감실은 대략 180년 뒤에 세워진 陝西省 西安의 慈恩寺 大雁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각 평면의 慈恩寺 大雁塔과 미륵사지 서탑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嵩岳寺塔에서 나타난 십자형 통로는 중국 塼·石塔 평면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후대에까지 이어지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흥미를 끈다. 고대의 嵩岳寺塔과 大雁塔은 전체적인 평면 형태가 다르지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진 십자형 통로와 중앙 감실이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大雁塔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薦福寺 小雁塔(唐 701~709년)은 같은 4각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면의 통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면의 외부에 감실이 구성되어 있다. 이 탑은 청대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붕괴와 중건이 거듭되었다.²⁷⁾ 거듭된 중건과정에서 통로가 감실로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우, 배면에 남아 있는 외부 감실은 본래 통로로 구성되었다가 중건과정에서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벽체로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淨藏禪師塔은 8각탑으로써 앞의 4각탑과 다른 평면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隋·唐代의 불탑 평면은 대부분 4각형으로 나타나 있다. 佛光寺 6각탑과 嵩岳寺 12각탑이 있기는 하지만 흔치 않은 예라할 수 있다. 감실로 통하는 통로도 정면 한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탑 내부에 감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탑의 규모도 앞서 언급한 전대의 예들에 비해서 현격히 작아 십자형 통로가 간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宋代 이후에 중국 탑의 평면은 8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宋代 초기의 江蘇 吳縣에 있는 羅漢院雙塔(宋太平興國7年, 982)은 기단과 탑신이 8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면 형식은 8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감실과 사방의 통로가 남아 있다. 이후 宋代의 탑에서는 중앙 감실이 여러 실로 분산되거나 내부에 회랑이 구성되기도 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내부 감실에 이르는 통로도 1, 2, 4, 8방향으로 통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고대의 십자형 통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宋代의 8각 탑인 祐國寺 鐵色琉璃塔(宋慶曆年間, 1041~1048)은 사방으로 1감실, 1통로가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감실에서는 탑 정상에 오르는 계단실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뒤

26) 梁思成, 위 책, 66쪽.

27) fulinman.com/ 大雁塔-小雁塔.

<그림 4> 중국 塼·石塔 시대별 평면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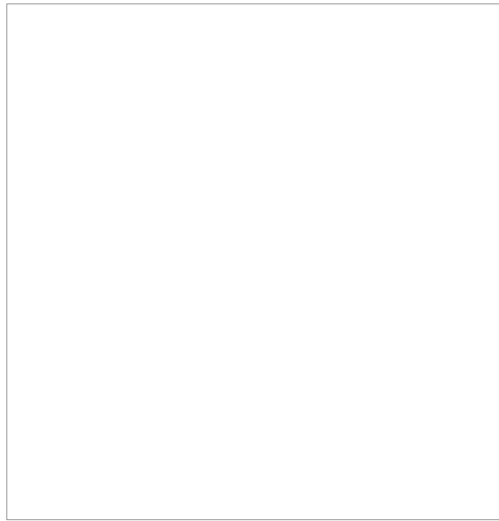
이러 축조된 開元寺塔(宋至和2年, 1055)에서는 사방으로 통로가 구성되어 있으나 감실이 사다리꼴과 배후 반원형으로 중첩되어 있다. 즉 내부 감실이 하나의 통로에 두 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 감실의 증가는 興隆寺塔(宋嘉祐八年, 105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8각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興隆寺塔에는 사방으로 통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면을 제외하고 각각 하나의 감실이 구성되어 있다. 정면 통로에는 다른 세 면과 똑같은 위치에 방형 감실이 구성되어 있고 중심부를 향해 통로를 연장하여 다시 좌우에 방형의 작은 감실을 덧붙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평면상의 변화를 근거로 보면 이 시기에는 탑의 내부 중앙에만 설치되던 감실이 사방으로 분산되며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遼·金代에는 탑 내부에 회랑처럼 일주하는 통로가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감실은 탑 내부 회랑의 폭에 비해서 작거나 같은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덜 강조된 느낌이 든다. 외부로 통하는 통로는 12세기 초의 智度寺塔(遼末金初)에 이르기까지 십자형을 근간으로 하는 네 방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후 遼代末로 추정되고 있는 8각 탑인 萬部華嚴經塔에서는 전후 두 개의 주 통로가 있고 나머지 6면에 부속적인 좁은 통로가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8면을 도는 회랑 형태의 통로가 있다. 감실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작게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는 육축으로 메워져 있으며 정면 우측의 부속 통로 위치에 상부로 오르는 계단실이 있다.

金代에 세워진 탑으로 추정되는 河北 正定縣의 廣蕙寺華塔은 8각 평면상의 네 면을 다시 작은 6각형으로 달아낸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부에는 8각의 감실이 있고 정면의 통로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8각으로 내부를 일주하는 통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네 방향으로 주 출입 통로가 있다. 밖으로 돌출된 부위에는 각각 좁은 통로가 있고 6각형 감실이 구성되어 있다. 복잡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내부를 일주하는 회랑 형태의 통로와 네 방향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통로는 遼代 초기의 雲居寺塔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그림 4>

중국 磚·石塔의 평면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십자형 통로와 중앙 감실은 北魏時代 嵩岳寺塔(520)에서부터 宋代의 羅漢院雙塔(982)에 이르기까지 평면형식의 주요 구성요소로 나타나 있다. 宋代의 鐵色琉璃塔(1041~1048)에서부터는 내부 감실의 위치가 중심부에 있지 않고, 여러 개소에 설치되고 있다. 또한 감실의 평면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초기부터 나타난 십자형 통로는 기본적인 형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遼·金代에 이르러서는 8각탑 내부에 일주하는 회랑식의 통로가 첨가되고 있다. 십자 통로는 遼末金初까지 그 형식을 잃지 않고 있다. 이후 8각탑에서 주 통로가 전후 2개소 또는 십자형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각 면에 부속적인 좁은 통로가 첨가되고 있다.

미륵사지 서탑은 1층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통하는 十자형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평면은 4각 방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중국의 大雁塔(唐 701~704)과 같은 형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탑 내부의 중앙부는 미륵사지 서탑의 경우 중심에 4각형 심주석이 쌓여 있다. 탑의 중심부는 심주석 구조가 없이 트인 중앙 감실로 이루어져 있는 大雁塔와 다른 모습이다.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 구조는 十자형 통로로 구획되는 네 모서리에 방형의 육중한 석축을 배치한 형태로 되어 있다. 大雁塔 평면 구조도 역시 전체 4각형



<그림 5> 미륵사지 서탑 1층 평면도

평면의 네 모서리 부위에 방형의 육축을 배치한 형태다. 다만 방형 육축의 내부 모서리는 중앙 감실을 구성하면서 모를 안쪽으로 접어냈으므로 미륵사지 서탑보다 다소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면 외부에는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육축에 각각 하나의 감실이 구성되어 있으나 미륵사지 서탑은 면적으로 단순하게 마감되어 있다.<그림 5>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은 중국 석탑에서 나타나는 시대별 평면형식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宋代 이전 시기의 형식을 간직하고 있다. 비슷한 평면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중국 唐代의 大雁塔와 비교해 보아도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형식은 국부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초기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또한 탑의 평면 중심에 있는 심주석은 중국 塼塔에서 宋代 이후에 나타나는 육축과 달리 단일 석재로 쌓아 올린 기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평면의 전체적인 형태와 심주석의 존재는 8세기 초 唐代의 大雁塔보다 직설적인 목구조 모방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 형식의 변천과 구조 기술의 발전단계를 염두에 두고 보면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형식은 大雁塔보다 앞선 시기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미륵사지 서탑은 창건을 비롯해서 연혁을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희박하여 그동안 계통사와 목조 번안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개략적이지만 중국 塼·石塔 평면의 시대별 고찰을 통해서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형식은 적어도 7세기 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V. 결 론

미륵사지 서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祖形이며 목조변안 석탑이다. 백제시대의 목조건축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탑이 지니고 있는 건축사적 의미는 더없이 중요하다. 해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축 흔적과 서측 1층에 남아 있는 석축은 그동안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탑에 가해진 변형과 중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이 석탑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백제시대의 목조건축과 우리나라 석탑의 계통사 정립 같은 크나큰 연구과제가 대기하고 있다. 탑의 연혁과 평면형식에 대한 시대적 위치 규명은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중대한 연구 과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찰해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전후시기에 나타나 있는 碑文과 文集 따위의 간접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탑의 연혁을 추리해 볼 수 있었다. 『惠居國師碑文』에서의 “開築”은 『三國史記』의 “金馬郡彌勒寺震”에서 “震”을 地震으로 해석해 보고 922년경의 “改築”으로 추정하였다. 『陽谷集』과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탑의 붕괴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들어 992년의 改築에 대한 추정에 신빙성을 더해 보고자 했다. 16세기 문헌들에서는 허물어진 상태와 『三國史記』의 “震”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18세기의 『臥遊錄』에서 100년 전에 벼락(霹靂)으로 탑의 절반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타나고 있다. 전후시기의 문헌에 표현된 정황을 근거로 현재 나타나 있는 붕괴시기를 1570년 이후, 17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탑의 서측 석축은 『臥遊錄』에서의 둘러 친 서쪽 벽(緣西壁)과 밟고 올라갔다는 “陟”에 기초하여 17세기 내지는 18세기 초에 축조되었다고 추정해 보았다.

미륵사지 서탑의 4각+자통로 평면형식은 중국 석탑에서 나타나는 시대별 평면형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宋代 이전 시기에 위치함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평면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8세기 초 唐 大雁塔과의 비교를 통해서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형식은 7세기 초에 위치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period of the Mireuk Temple stone pagoda plane type

Kim, Duk-Mun

The Mireuk Temple Stone pagoda is the largest scale of the existing Stone Pagoda in Korea. A research until now postulates that the Stone pagoda at Mireuk Temple site is composed of nine stories total. However it does not have any records of the detail, dimension, and related methods, etc, even though it is a tectonically large scale building. Only one source of the description is based upon a story which is a sort of Korean myth or traditional story (Samkukyousa, Mu dynasty), although a historical description from a myth or a story is a polemical issue and still needed research in order to prove the truth.

One of the ways to make a proof of the truth is an architectural research from the typology of the plane. The types of the plane are differentiated from each era. Therefore, the typology of the plane presents a reason or a proof for the age of the pagoda. Furthermore, the typology of the plane is crucial part in the research of the historical style and it could help the historical style of the Mireuk temple stone pagoda.

Research until now shows that the Mireuk temple stone pagoda is the genesis of the stone pagoda shaped after wooden one. It is impossible to find any previous one from the stone pagoda at Mireuk Temple site in Korea. So it is easier to find any previous example from the history of China because Buddhist pagoda - most pagodas are something to do with Buddhism - in Korea is introduced by India via China. This research presents the periodical variation of stone and brick pagoda in both countries. It concludes that the Mireuk temple stone pagoda has 7th century's plane type.

Keyword : The Mireuk Temple stone pagoda, Plane Type, Period of Plane Type, Crossing Passage Plane, 7th Century's Plane.